

# 안성맞춤 행복제작소 활인선원



## 인터뷰

아침 먹고 점심 먹을 사이면 생사대사의 큰일을 마칠 수 있다.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참선의 요체다.

현대인들이 자아상실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은, 모든 생물의 본능인 존립욕구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비대해지면서, 개인과 단체 국가에 이르기까지 팽창일방주의에 휩쓸리거나 과대망상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루어지지 어려운 요구가 원하는 데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더욱 난폭하고 잔인하여, 개인적으로는 사회성 결여와 대인관계에서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한두 번씩 겪은 바 있는, 정서불안 기 억력상실 우울증 신경쇠약 공포불안 집중력저하 스트레스 등 장애로 나타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된다. 가정파탄이나 자살률이 높아지고 사회불안 갈등고조 투쟁과 전쟁광으로 이어져서 평화붕괴와 인류파멸을 자초하게 된다.

▶ 요즘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선전문도량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참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참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참선은 길입니다. 참선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일한다는 생각 없이 하면 일은 떨어지고 쉬어집니다. 참선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참선을 하면 차는 그대로 굴러가는데 운전수는 마음이 쉬어 번거로운 마음이 사라져 장애물을 바로 볼 수 있고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는 생각이 없으면 일에 매이지 않아 일하는 가운데도 한가롭습니다. 이런 상태를 ‘해도 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봐도 본 것이 없고, 종일 들어도 들은 것이 없고, 종일 일을 해도 한 것이 없으니 한가로운을 데리고 산다고 할까요. 천 사람 만 사람을 만나도 한 사람 대 한 것처럼 한가할 따름입니다.”

▶ 그렇게, 해도 한 것이 없고 들어도 들은 것이 없는 경지는 매우 높은 도인의 경지가 아닌가요. 처음 참선을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 “밥을 한 그릇 다 비우면 배가 부르지만 첫 손가락 다르고 둘째 손가락이 다르지 않습니다. 첫 손가락에서 마지막 손가락까지 똑같은 손가락에 한 그릇 다 비우면 배가 부르는 것처럼 참선도 첫 발자국 내 디딜 때나 마지막 발자국 내 디딜 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길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데 걸음걸음마다 구경각으로 미처는 걸음이기이기에 그 걸음마다 한가로운 수 있습니다.

가시발길을 헤매는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지만, 길을 알고 걷는 걸음은 반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볍고 여유롭습니다. 처음 어긋난 길은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기 마련입니다.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참선의 요체입니다.”

▶ 중요한 것은 먼저 길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모르는 길을 나서서 찾아가 보신 적이 있으셨지요.”

▶ 그렇습니다.

▶ “그때 어떻습니까. 집을 나서서 길을 가는데 알 수 없는 갈림길이 생기면 아는 사람을 붙들고 묻고 또 물어서 마침내 목적지에 당도하게 됩니다.

참선을 바로 아는 사람을 스승이라 하고 선지식이라 합니다. 스승을 찾아서 물어야 합니다. 구경에 이를 때까지 막히면 물어야 합니다. 인연이 닿으면 뛰어난 스승의 한마디에 생사대사의 큰 일을 마칠 수 있지요. 옛 선사들이 일인지하에 대오하는 것을 말합니다.

길을 물어서 간다. 이것이 참선의 전부라던 좀 지나칠 것 같으나 지나칠 것도 없습니다. 묻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땀 수 없으니 말입니다. 요즘 선방에 많은 스님들이 참선을 하는데 깨닫는 사람이 없는 것은 묻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에 공부할 바로 할 수 없습니다.”

▶ 참선을 하는 데는 화두를 참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화두는 어떻게 드는 것입니까.

▶ “화두는 바로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구경의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화두가 없을 때는 많이 헤매던 것을 길에 들면 힘들지 않고 다닐 수 있습니다. 길이 있으니 얼마나 다 행입니까. 나를 찾아야 한다.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도 바로 길인데, 나를 찾는 데는 이 화두라는 길을 밟으면 방향하지 않고 바로 목적지에 당도하게 됩니다. 화두를 바로 드는 것만 배우면 깨닫는 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화두를 바로 드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화두만 바로 들면 아침을 먹고 점심 먹을 사이이면 생사대사의 큰일을 마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설명 마치지 못하더라도 확고한 발판을 만드는 인생대 전환을 이루는데 넉넉한 시간입니다.”

▶ 마지막으로 참선 공부를 하는 사람에 한마디 해주십시오.

▶ “참선은 결코 힘 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힘을 빼고 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다로 가서 배를 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목숨까지도 내걸고 하는 것이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이 공부라는 점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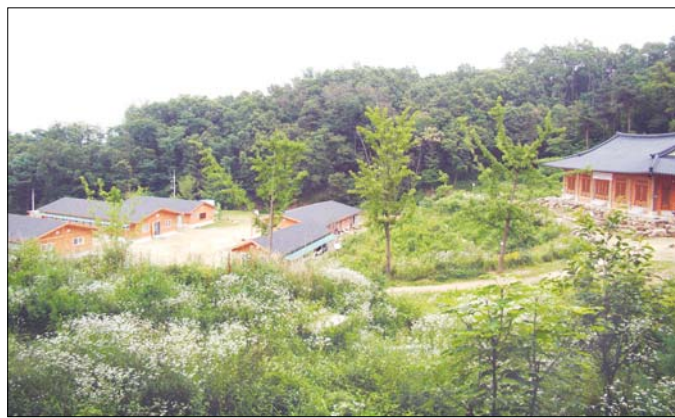
글 = 김한수(수선자)



선원장 대표스님께서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 행복은 마약? 신기루?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한다. 의식하든 못하든 인간은 때 순간 행복을 위해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한다. 돈을 벌고 공부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밥을 먹고 세수를 하는 사소한 일조차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다. 심지어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에 현금을 하거나 남의 집 담을 넘는 것조차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전부 행복을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네 삶에서 행복은 좀처럼 현실이 되지 못한다. 대개 벌기 보다는 쓰는 게 쉽고 합격하기보다는 떨어지는 게 쉽다. 설명 돈을 벌고 시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돈을 벌수록 모자라고 시험 뒤엔 더 큰 시험이 줄을 대고 서있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충족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명 충족된다 하더라도 잠시뿐, 더 높은 단위의 투여량을 요구하는 마약과도 같이 더 크고 더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요구한다. 분명 거기 있는 것 같은 데 막상 가보면 없는 신기루처럼, 여기 저기 날려있는 것 같아도 막상 찾아보면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 게 행복이다.



활인선원 전경



선방에서 정진하는 수련생

## 명품행복 처방전

놀랍게도 이곳 활인선원에서 찾을 수 있다는 행복은 마약이나 신기루 같은 짝퉁 행복이 아니다. 조건 뒤에 조건이 붙고, 뚜껑을 열면 김이 빠지고, 시간이 가면 바로 시들어 버리는 그런 가짜 행복이 아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아무런 조건도 붙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도 퇴색하지 않는, 말하자면 완전하고도 흠 없는 진짜 명품

행복이다. 물론 허위광고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이것은 과대포장된 비현실적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 아무리 진자 장인과 대가들의 솜씨가 살아 숨쉬는 도시 안성이라지만 어떻게 행복까지도 진짜 배기 명품 행복이 맞춤 제작된다는 것일까? 어떻게 그렇게 완전무결한 행복을 그토록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인가? 대답은 이 행복제작소의 행복제작자에게 있다. 이 진짜 행복을 제작해 준다는, 행복의 장인이며 대가는 다름 아닌 스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마하가섭에게 전수된 후 달마대사를 거쳐 동방으로 넘어와 가리성 같은 조사들을 거쳐 우리에게 까지 전해진 참선, 그 참선의 정통 법맥을 잇고 있는 선사, 대표 스님이 바로 이 행복제작소 활인선원의 선원장이다.

## 지혜는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다

마침 활인선원에서는 매달 열리는 닷새 일정의 정기 단기출가 수련회가 있어서 각지에서 참여한 수련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었다. 스님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을 소재로 참선의 핵심을 쉽고도 간명하게 풀어나가고 있었다. 법문이 끝나고 한 수련생이 손을 들어 질문을 했다. 어려운 한자성어에 심리학이론까지 곁들여져 한참을 이어진 질문이었다. 대답하기 매우 까다로운 복잡하고도 난해한 질문이었었는데 그 장황한 질문에 대한 스님의 대답은 뜻밖의 것이었다. 질문이 끝나자마자 스님은 질문자에게 곧바로 짤막한 질문 하나를 던졌고 그것이 그대로 대답이 되어버린 것이다. 스님의 질문은 그 복잡하고도 난해해 보였던 문제의 핵심을 그대로 짚었고 그것으로 그 문제는 끝이었다. 질문은 길고 어려워 보였지만 답은 너무나 짧고 쉬웠다. 질문자는 한편으로 후련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렇게 쉬운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여러모로 답답한 표정이 역력했다. 활인선원에서 제작한 달력 아래 적혀있는 “지혜는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스님의 법구가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 첫걸음부터 행복하다

스님이 제시하는 행복의 길은 시작부터 행복하고 즐거분하다. “한 숟 먹으면 그만큼 배가 부르고 한 줄 땀면 그만큼 짐이 가볍다”는 것이 스님의 평소 지론이다. 한 시간 공부하면 한 시간 공부한 만큼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게 참선이라는 것이다. 꽃밭을 향해 한 발자국 옮기면 그만큼 꽃의 향기를 더 맡을 수 있는 것처럼 본래 행복한 자리를 향해 한 발자국 옮기면 그만큼 더 행복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것 같다. 그래서 시작부터 가벼운 길, 그렇다면 어떻게 이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대답은 “어린애가 엄마 손 붙잡고 따라 가듯”하면 된다는 것이다. 앞에 가는 사람 그냥 따라라만 가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앞에 가는 사람은 길을 잘 아는 사람이야만 한다. 그래서 스님은 첫걸음을 특히 강조한다. 첫걸음을 바르게 옮겨야 다음 걸음도 바르게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다음 번 단추를 잘 끼워도 옷매무새가 바를 수 없다.”

## 다양한 수행과정

활인선원은 다양한 수행과정으로도 유명하다. 일 년에 두 차례 열리는 참선대중화선회는 일반대중에게 참선을 전수하기 위해 마련된 활인선원의 아산찬 프로그램으로 올 11월 12일 그 4번째 선회가 열린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선회에서도 대표 스님께서 직접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참선 법문을 통해 선의 정수를 참가대중들에게 전수하여 주실 것이다. 이외에도 30, 50, 100일 등의 단기출가 프로그램과 함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금강단식 단기출가 프로그램이 활인선원에서 매월 진행되고 있다. 행복제작소 활인선원은 프로그램도 역시 안성맞춤 맞춤 식인 것이다.



활인선원 대표스님

## 왜 참선인가

모든 문제의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밖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밖으로 향한 화살은 당시 때문으로 귀결됩니다. 행복의 조건이 당신이 나를 잘해주느냐 아니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돈으로 권력으로 천만가지 경계로 나타납니다. 밖으로 향한 이 한 대목이 가시밭길과 수렁으로 이어지고 끝없는 방황으로 무랑검토록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부모형제와 망가지고 사랑하다가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경계에 떨어져 천 만길 낭떠러지에 파묻혀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모두 자신인 '나'를 외면한데서 비롯됩니다. 이는 자신 즉 '나'를 너무 몰라 그렇습니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등지고 삽니다.

길은 나에게 통합니다. '나'는 모든 세상과 무불상통입니다. '나'로 통하는 이 길을 외면해서는 영원토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로 통하는 완전한 길은 바로 최상승이라 일컫는 참선입니다. 화두를 간택 받는 것은 명명백백한 깨달음을 향한 큰 걸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참선은 망설임이나 주저함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선의 화두는 확고하여 정함이 분명합니다. 이 화두를 바로 들면 구경의 깨달음은 눈앞에 나타납니다.

활인선원 ☎ 1644-5266, 070-7519-9929

## 체험담 - 김종일 (47세, 서울)

젊은 적부터 불교에 심취하여 수행활동을 하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틈만나면 불교서적을 읽는 것을 큰 낙으로 알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책만 볼게 아니라 불교의 정수인 참선을 공부해야겠다는 뜻을 갖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09년 3월 중순 활인선원의 참선대중화선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선대중화선회에서 대표 스님의 법문은 참선의 '참' 자도 모르는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스님들께서도 몇 십년간 문을 걸어 잠그고 온갖 고통을 감내해가며 하는 것이 참선임을 알았는데 “참선은 하는 게 아니다. 할 일이 없어야 한다. 하지 않는 데서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참선이다”는 말씀으로 가슴 한 구석이 후련해지는 것을 맛보고 이후 제 식습관 모두를 이르고 가족 전

원이 활인선원의 수행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큰스님의 법문은 지금도 무엇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서 이 법을 나 혼자 듣고 말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수행토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나고 눈물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참선을 공부하면서 이전보다 더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도 좋아져서 전에는 사계절 내내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하던 체력이 금강단식 수행을 하고 나서서 어느새 가뿐한 일어나게 되었고 정신은 너무나 맑고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선원장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참선공부를 계속 해나가며 이 행복의 길을 다른 이들과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